

人ノ人トコヲ己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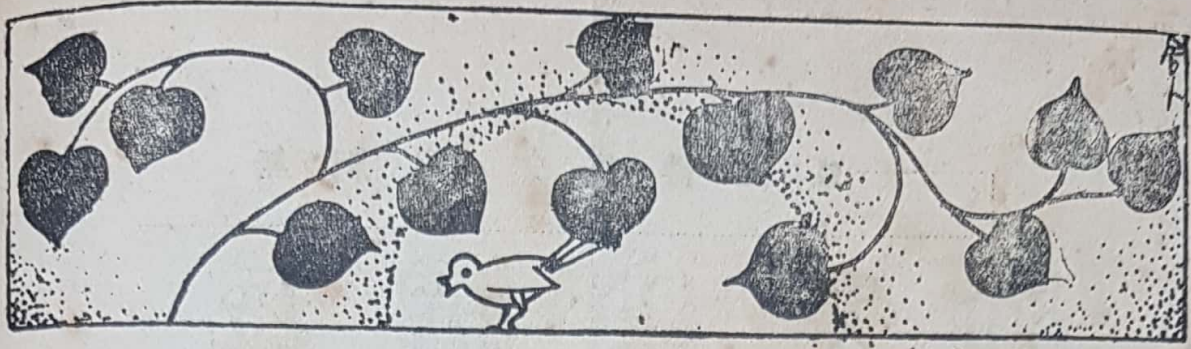
大正十四年五月三十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二年一月一日發行(毎月一日發行)

時事評論 第三百四十一號

時事評論

附產業講座

號 月 一



時事評論目次

昭和二年一月號 (第三四一號)

表紙題字

○大行天皇의 崩御를 謹히 奉悼함 (卷頭言) (一)

●宮廷錄事

國民協會의 本領 (國民協會總務 金 丸 (四))

水利組合의 事業經營者와

「組合員間의 意思疏通問題」 (金 義 用 (二))

社會運動의 變遷 (鶴 陰 生 (一八))

◇時事片々

滿洲水田의 開拓者인 (松 山 生 (二四))

在滿鮮人의 地位問題 (松 山 生 (二四))

資本主義가 產出한

「社會問題의 歸趨」 (五) (天 淵 (二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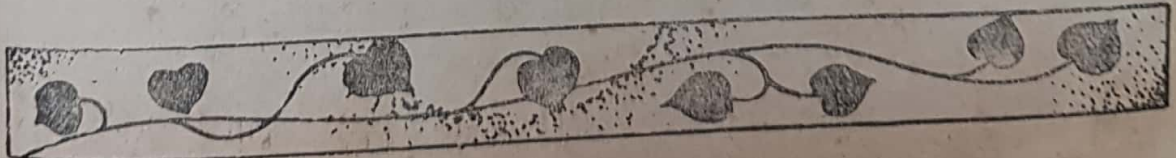
朝鮮青年의 使命과

修養村의 建設 (東京修養團本部 崔 憲 軾 (三一))

蓄財致富의 道 (中) (金 義 用 (三四))

年頭 猛省 自覺을 心 祈 (海 州 朴 性 宙 (四二))

所感 農村社會의 救濟를 希望함 (黃海支社 洪 信 權 (四三))



◎各地面協議員當選者一覽

產業講座

紙上演

特別緣故林讓與令

施行에就하야

鐵道와產業의關係

한朝鮮사람이되고본나의所懷(下)

生活戰과產業組合

朝鮮의土地改良事業(下)

緊要한朝鮮山林의改善

朝鮮園藝作物의現況과

「그獎勵에就하야」(二)

農家經濟進展의要諦(下)

調査研究

朝鮮農業大觀(一)

朝鮮의販賣肥料狀況(一)

初等學校로서의

農業教育資料에就하야

小作農民의諸負擔日考

實業學

家族經濟란무엇△生産이란무엇△生産의種類△社會保險이란무엇

地方產業

京畿道產業施設의概況

各道産業紹介(1)

- 一、普通農事
- 二、蠶業
- 三、畜産
- 四、土地改良
- 五、林業
- 六、水産

△産業彙報

(土地改良事業過程△土地基本調査終了△不良水組救済△各道土改反別
△農改低資融通額△綠肥收穫總額△小作慣習基本調査△朝鮮對內地貿易
易△四等米廢止問題△全朝鮮地主懇談會△特別緣故林讓與令施行規則

◎今年度朝鮮總督府豫算

△晴事日誌

初面者の이야기

笑談片譯

漢編餘滴

昭和農家曆日表

昭和農家曆日表

園田 寬 (五)

大村 卓一 (五)

安達 房治郎 (五)

岡崎 哲郎 (六)

池田 泰治郎 (六)

後藤 眞咲 (七)

八田 吉平 (八)

八尋 生男 (八)

朝鮮總督府殖産局 (八)

三須 英雄 (九)

八尋京畿道農務課長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一 記者 (九)



밥 ! 밥 !

(上)

빅터 ー, 유 ー 고 ー 作
仁 王 山 人 譯

지금부터, 옛날년전에, 「크로 ー드, 유 ー」라고 부르는 로동자가 있었다. 그는, 삼순구식의 생계나마, 세워가지 못하는, 가난한 로동자이었다. 그에게는 안해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한아가, 있었다. 그는, 실상, 교육은 바터본일이 없으나, 사람됨이 총명하야, 손재조는, 남에비하야, 질스바이업는 사람이었다. 안이, 그의런품 그것으로만 볼것가 르면, 남에 쓸닐 스바이업는, 령리한 사람이었다.

째는 겨을이었다. 그는, 부지런히, 버려먹고 지하였으나, 버려먹을 구멍이란 없었다. 그리하야, 그의집에는, 광한조각, 나 무한줄이, 업게되었다. 그의안해며, 그의아들은, 배고파, 부르짖게되었고, 등실혀, 울게되었다. 이비참한광경을보게된 그는, 생각다 못하야, 도적질을하게되었다.

그가, 무엇을도적질하였는지, 그는, 모르겟스나, 그가도적질을하기때문에, 그의안해며, 그의아들은, 사흘썰은, 먹고살 스수가 잇게되었고, 쟁고살 스수가 잇게되었다. 그러하나, 그는척것을도적질하기때문에, 다섯해동안이란 긴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크레아버우」라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감옥은, 원래, 철이 엮스나, 그째에는, 감옥으로 쓰게 되었는데, 그는, 이 감옥에 들어와, 밤이 되면, 상숙감방(監房)에 서자고, 낮이 되면, 공장으로 끌려나가, 고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원래, 청직한 노동자였으나 「크로드, 카」도, 이제부터는, 도둑놈이란 패를 차게 되었다. 그리하나, 그의 얼굴에는, 도리혀, 위엄이 세워, 엄숙해 보이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으나, 그의 버스려진 이마에는, 주름살이 잡혔었고, 섯얌언머리털에는, 재스빋을 켜권발(卷髮)이 섯겨졌었다. 그리하나, 그는, 어질고도, 힘잇서 보이는 노동자와, 또는, 털은 코구멍, 솟나민 턱, 그리하고, 거만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말하는 법이 리노릇을 하고 지냈다. 그리하지만, 그의 태도는, 어느새든지, 무엇일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이러한 성격이 잇게 됨은, 생후, 주위의 영향이나 또는 교육 그것들이, 그를 그와 가티맨든 것안이라, 실상, 말하면, 그의 성질이, 자초부터, 그리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의 컷국갓을 살님이, 그를, 한층이나 더, 그러한 성질을 갖게 하였다.

「크로드, 카」의 공장에는, 감옥의 본관으로, 이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 곳 감독이란 사람이 잇었다. 그는 공장의 감독인 동시에, 연옥이었다. 그는 징역하는 죄수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또는 그들을 모라 대는 사람이었다. 그리하고, 그는 징역수에게, 작업기구(作業器具)도 주며, 또는, 징역수에게, 착고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람됨이, 컷째는 말이 적고, 둘스째는, 성질이 탕후하며, 섯째는, 무슨일이든지 자의로, 좌우하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명령에 굴복시키고야 마는 사람이었다. 그리하나, 후오느째에는, 징역수에게 대하여, 업지 못할 말 벗도 되었던 것이다. 하여간, 그는, 어느모로 보든지, 지극히, 거북한 사람이었다. 그가, 징역수에게 대하여, 패할 허우서 보이는 것이라든지, 또는, 다 청하몸을 갖는 것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온 것이안이라, 자기 직책상의 수단이었다. 그는 고집불통하는 자기의 성질을, 의지(意志)의 힘이 라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속물(俗物)을 별(星)이라, 육이 며칠 반을 용수라고 육이는 사람이었다.

「크레아바우」의 중앙에 있는 공장에는, 커다란 청철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으로 있었다. 「크로이드, 규」가, 이 감옥에 들어오자 그는 공장에서 작업번호(作業番號)를 더 가지고, 고역을 하게 되었다. 감독은, 그의 재간이, 남에 비하여, 월등함으로, 그에게 「신수」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특별히, 우대를 해주었다.

그가, 감옥의 물을 먹은지, 두어 달 쯤 뒤로부터는, 별서 감옥 생활에 자미를 못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모것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일들에는, 여전히, 보기에 엄숙하며, 또는 냉정해보이는 표정(表情)이, 세워있었다. 그는 동무 죄수들에게, 엄부의 위엄가튼 위엄을 나타내 보이었고, 자모의 사랑가튼 사랑을 나타내 보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동무 죄수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로와, 의논할 만만이라, 그의 말이면, 어떠한 말이든지, 즐겨, 들었고, 또는, 그를, 참말로, 존경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반한 죄수들은, 그의 일동일정을 입내내고 지냈다.

그가, 이 공장에, 있은지가, 석달도 다 못되어, 그는 공장의 법률(法律)이 되었고, 또는 규범(規範)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자신이, 이 감옥안의 왕이나 된 것가리, 생각하게 되었다. 안이, 그는, 자기 부하의 대승정(大僧正)들과 함께, 감금(監禁)된 로마법왕(羅馬法王)가 됐었다.

그가, 그와 가리, 죄수들에게 존경을 받는 외담에, 간수들은, 그를, 사갈(蛇蝎)과 가리미워하게 되었다. 올라! 인망(人望)이란 것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안코는,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이다.

「크로이드, 규」의 식량(食糧)은, 보통 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굶이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남보다, 굶이상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겨우, 시장함을 면하는 사람이었다. 「크로이드, 규」가, 범죄하기 전, 곳,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 버리, 커 버리를 하여, 하토에, 면보, 세근(糸)을 먹고 지냈었다. 그러하나, 감옥에서는, 범죄하기 전만치, 안이, 그 이상, 로동을 시키

지마는, 어느새든지, 하로에, 면포열두량중에, 고기멧조각을줄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입속이후부터는, 졸것, 굶주리게되었다. 안이, 배골아, 부른짓게되었다.

어느날, 「크로이드」는먹으나마나한배를움켜잡고, 공장으로, 일을하러나갔었다. 선죄수들은, 그새사것, 밥먹기에, 밧부엇었다. 얼마못되여, 햇속한얼굴에, 썩만남어잇는젊은죄수한아가, 「크로이드」의옆으로, 배다려와잇었다. 그젊은죄수는, 그새사것, 입을매지안한면포와또는국「그리하고, 「나이프」를든채로, 대들어, 무슨말을할것가랬다. 그리하나, 그는「크로이드」에게대하여, 먼키, 말을못치려안하였다.

『왜, 면보며, 국을가지고만도라단이우?』

하고, 「크로이드」는, 소리를높혀, 불었다.

『글쎄요. 나는, 당신세, 칭할것이한아잇습니다』

하고, 그젊은죄수는, 대답하였다.

『무엇이란말이오?』

하고, 「크로이드」는, 여권히, 통명스럽게불었다.

『이것을먹을터인데, 이것이, 나에게는너무만어서, 좀, 잡수어달라는칭입니다.』

이말에「크로이드」의통명스럽든말소리가, 어느틈에업쳐지고, 그의눈에는, 눈물이, 그렁／해졌다. 그리한후, 「크로이드」는, 그젊은죄수가가지고잇는「나이프」를바더가지고, 그음식을, 반분하여, 서로먹게되었다.

『더, 참자세요. 실치안오시거든, 매일, 이러케, 나누어, 먹읍시다』

하고, 젊은죄수는말하였다.

『그러한데, 당신의일을무엇이라하오?』
하고, 「크로이드」는물었다.

『비, 내일음!』알빈이라고부르시오』

『그런데, 왜? 감옥사리를하게되었소?』

『비, 도적질을하기때문예요』

『그러면, 당신도나와달음이없구료!』

그리하여, 「알빈」은, 자기의음식을, 「크로이드」와날마다, 나누어먹게되었다. 「크로이드」의나하는삼십륙세에불과하였지만몸이장대하고, 외모가엄격해보이는사람에, 오십세나되는중늙은이가해보이었다. 그리한데, 「알빈」은나히이십세나되었지만몸가는법이, 어린애가틈으로, 열륙칠세쯤되는, 아인가해보이었다. 그리하기때문에, 두사람의관계가, 부자지간가됐고, 따라서, 그정의도, 또한, 아비와자식사이가태다.

그들은, 가쁜공장에서일을하며, 가쁜자리에서잠을자며, 가쁜테이블에서, 음식을먹는사람에, 한층이나더, 정의가, 두터워졌다. 그리하여, 이두사람은, 한죄수들에비하여, 두터히, 유복해보이었다.

우에도말한바와가터, 감독이란자가, 「크로이드」를특별히미워하는사람에, 모든죄수들은, 감독그를미워하게되었다. 그리하여, 감독은, 죄수라면, 누구든지, 미워하고, 그복수하는수단으로, 죄수에게전되지못하고역을시키는일이엄지안었다. 그리하여, 죄수들은, 자기네들의, 존경하는「크로이드」에게, 모든말을해들니고, 구조(救助)해주기를원하는일이엄지안었다. 그리하여, 죄수들의동맹과인연은죄수들의인생의익기만하면, 감독은있다함, 「크로이드」의위엄을빌어, 그것들을진정시켰다. 다시말하면, 죄수들의불평의식일어나는, 모든소동을진정시킴에는, 「크로이드」의한마디말이, 현명열사람의때마디말보

다 도로혀 유력하였다.

커와갓티, 감독이란 자가, 「크로이드」의 힘을 빌어, 수인을 제재하는 일아 빈번해갈수록, 감독은 「크로이드」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이는 달음의 안이었다. 실케덕세력(實際的勢力)에 대한 권력(權力)의 대항—곳, 정신적 힘에 대한 세속적(世俗的) 힘의 반항이었다.

「크로이드」는, 참말로 「알빈」만 사랑하고, 감독가튼 것은 안하(眼下)에 두지 안었다. 어느 날 아침, 간수가, 죄수들을 식감방에서 불러, 공장으로 다리고 왔을새에, 간수한사람이, 「크로이드」에게 잇는 「알빈」을 불러

『이애!—네가, 너를 불러 오라 한다』

하고, 「알빈」을 다리고 갔다. 아침새가, 지낸 지 오래되, 「알빈」은 공장으로 도라 오지 안었다. 밤먹을 시간이 되었으므로 「크로이드」는 뜰에서, 「알빈」을 만나려 하였었다. 그러하나, 「알빈」은, 여전히, 공장으로 도라 오지 안었다. 커와갓티가 되며, 죄수들이, 감방으로 불려왔을새에, 「크로이드」는, 「알빈」이 그중에 섞여잇는가 하고, 차쳐보았스나, 그중에도, 역시, 섞여잇지 안었다.

그리하여, 「크로이드」는, 참다 못하여, 간수에게 대들어

『알빈』이가, 병이 낫습니까?』

하고, 물었다

『무엇?—병이나?—안이……』

하고, 간수는 대답하였다.

『그렇것가 트면, 「알빈」이, 왜? 도라 오지 안었습니까?』

『글쎄다. 아마, 「알빈」을, 한 공장으로, 보냈나 보다.』

「크로이드」는, 간수에게, 이말을주고, 이를악물면서

『비? 그래요. 누가그런명령을나뒀나요?』

『누구는알어무엇하니? 아마, 「엘, 석」그이것지』

감독의말을、「엘, 석」이었다.

그이른날이되여도, 「크로이드」는「알빈」을맞나보지못하고, 말었다. 저녁새가되여, 공장문을닫게된새에, 감독, 「엘, 석」가, 공장순시로나왔다. 감독이, 눈에쬐우자, 「크로이드」는, 현검모자를벗고, 절상엮헤서, 감독이가꺼이오기만기다리고잇었다. 감독이, 자기압홀지내려할지음에, 「크로이드」는소리를잡혀

『감독각하!』

하고, 부르지켰다.

감독은, 이부르는소리에, 고개를반쭈, 도리키고잇었다.

「크로이드」는, 또다시, 「감독각하!」부르면서

『알빈을싼공장으로보냈다는것이, 정말임니사?』

하고, 물었다

『그래!』

하고, 감독이대답하였다.

「크로이드」는또친히, 감독각하! 「부르면서,

『지가, 살면면은, 알빈이엮헤잇어야합니다. 아시는바와가리, 감옥에셔주는, 밤그것만으로는, 지는, 배고파살어갈수가

엄습니다. 알빈은, 어마다, 커에게, 밤을반식주었습니다.
하고, 머물렀다.

『무엇? 그것은, 나는모른다. 너의어리맘대로한일이니깐...』

『감독각하! 처벌, 알빈을, 커와함께, 잊게해주세요요』

『무엇? 그는안된다. 벌써, 다결정되었스니깐...』

『누가, 그러했습니까?』

『응! 내가 그랬다.』

『크로이드』는, 여전히, 「감독각하!」 부르면서

『네, 알었습니다, 그리하신것은, 참, 커의생명을빼스신것과달음이엄습니다. 아모리, 그와갓치, 결정하시었습니까?』
감독께서, 변경하시려면, 변경하실수가있지요? 좀생각해주세요요』

하고, 애원하였다.

『글세다, 사정은섞하다마는, 나는, 한번결정한것은변경하지안는사람이다』

『감독각하! 지가, 각하께, 무슨잘못한일이잇는가요?』

『안이! 잘못은무슨잘못이야』

『그러면, 왜, 알빈을커와, 빼노시었습니까?』

『응! 그는, 이러한리유로.....』

하고, 감독은대답하였다.

감독은, 그리유를설명한후, 「크로이드」와떠려지갔다

「크로이드」는, 감독의리유설명에대하여, 아모대답도하지안코, 고개만폭스속이고잇었다.

「크로이드」는, 그 이후부터는, 얼굴에, 불평한 표정을 띄우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하나, 동무죄수들에게 대해서는, 도로혀
은근해졌고, 다정해졌다.

동무죄수들도, 「크로이드」의 식량을 아는 자들은, 얼마다얼마간 식, 털먹고, 「크로이드」에게, 주었었으나, 「크로이드」는
한사하고, 바터먹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배를 볼 수 없었었다.

감독이, 「크로이드」에게, 「알빈」을 쥔 리유를 설명한 이후부터는, 「크로이드」가, 커튼만 되면, 못생긴 처를 하면서, 해근
／＼하였었다. 감독곶던옥은, 매일한번 식, 공장을 순시하는 외담에, 「크로이드」는, 그를 보기만 하면, 이를 악물며, 눈을
부릅뜨고, 「그러치만, 알빈을 줄……」하고, 부르짖었다.

그러하나, 감독은, 어느새든지, 못드르쳐하고, 지내갈련이었다.

어느공일날, 「크로이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어시간동안, 씹작달작도 하지 않고, 뜰에 노혀있는 돌우에 안키었었다. 동무
죄수의 한사람인 「파이레트」란자가, 「크로이드」의 옆으로와, 우스면서

『여보게, 왜? 그리고 안켰나! 「크로이드」?』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크로이드」는, 감안하, 「파이레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응……생각하는일이잇서서…… 그것은 단생각이안일세, 내가, 지금감독이란자를잇지하면조홀외, 그것을나혼자, 재판하고
잇는것일세』

새는일천팔백삼십일년십월이십오일 이날의커튼째에, 감독은, 여친하, 순시로나와도과단이게되었다. 이커튼째에, 「크로
이드」는, 복도에서본시계류를, 발로밟아, 진모았었다. 감독은, 이진모는소리를듣고

『이것이, 무슨소리냐?』

하고, 「크로이드」에게, 물었다.

「크로이드」는, 평면무심한태도로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하고, 대답한쪽, 다시말을이어

『지가, 그리한것이에요. 감독각하! 던옥각하! 커의친구, 「알빈」과함께잇게해주세요요. 비?』

하고, 대들었다.

감독은, 씩, 우스면서

『이놈아, 그건, 안되』

하고, 대답하였다.

『크로—드』는, 던옥을, 무섭럽히치어다보다가.

『그래도, 좀, 생각해주세요. 오늘은십월이십오일입니다. 커는십일월사일까지, 기다리고잇겠습니다.』

하고, 은근히, 이를악물고잇었다.
엠펙헤트는간수는, 「크로—드」가, 「썬케트」제문에, 던옥에게, 매드는줄알고, 간수는, 던옥에게, 「썬케트」에대한말을하자

던옥은, 얼골에, 우음을지우면서

『안이야. 썬케트가안이야. 커놈을좀, 잘대침해주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이른날, 모든죄수들은, 양다작에모이며, 이야기기, 커, 이야기하고잇을사이에, 「크로—드」는, 홀로떠러져, 무엇생

각하면서, 건물고잇었다. 이썬에, 「크로—드」의동무죄수의한사람인「페루노」가

『여보게! 「크로—드」, 자네는무엇을그리생각하고도라단이나? 보기에, 좀, 안됐네그려』

하고, 불너, 세었다.

『응—을말일세. 나는, 지금, 던옥에게큰재앙이 다닥칠것가래서, 그것을생각하고잇는것일세. 알것나?』

하고, 「크로—드」는대답하였다.

(조잇소)